

개 회 사

2026. 4. 7.(화) 14:00

금융감독원 대회의실 (9층)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용 감 독 원
원 장 이 찬 진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정문 의원님, 금융협회장님,
금융보안원장님, 강병훈 교수님,
보안 기업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II 간담회 개최 배경

아마도 금융보안을 주제로
국회와 금감원, 금융협회, 보안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현재 금융회사의 보안 의식과 위험관리 수준,
금감원의 감독 방식과 제도로는

되풀이되는 보안사고를 막을 수 없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금융산업에
외부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뿐만 아니라,
내부 요인에 의한 전산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 보안상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 거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처리 용량을 확충하지 않고,
- 서비스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등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제는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III | 사전예방적 감독 방향

먼저 금융감독원부터 감독방식을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금융회사 스스로
IT 리스크나 보안상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여 적시에 조치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취약점 분석·평가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를 선별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고 대응 체계도 면밀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보안 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무 미준수 또는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IT 사고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IV | 부탁의 말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와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먼저 대규모 정보보안 사고를
보다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금융협회에서는 각 업권 내에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건·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시장 신뢰를 굳건히
지키는 초석임을 인식하고

IT·정보보안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

AI 디지털 혁명의 높은 파고 속에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 서비스 대부분이
IT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은 그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전예방적 금융보안 패러다임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